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사회적기업
최대 50% 임금 지원

정읍시가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채용·계약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인력 확보를 돕고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총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 예산은 도비 30%, 시비 70%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은 징계 내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신규 채용·계약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 근로자는 임금의 30%, 취약계층 근로자는 50%까지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회적기업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한 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청년 맞춤형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 운영

정읍시가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면접 시 필요한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신감 있는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정장 대여 서비스는 정읍시에 주소를 둔 18~45세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대여 품목은 남자 정장뿐만 아니라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벨트, 구두 등 면접에 필요한 서류 일체가 포함된다. 또한 대여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1회 최대 2박 3일간 이용할 수 있어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영농부산물 파쇄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부안군은 분철 산불조심기간(2025. 2. 3. ~ 5. 31.)에 산불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분철을 맞아 본격적인 영농 준비에 앞서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전국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산불 대부분이 분철(2월~5월)에 발생하였으며 산불발생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논밭두렁 소각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안군은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비상근무 및 관계기관 연락망 유지를 통해 대응태세를 갖추었고, 특히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파쇄지원팀'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활동에 나섰다.

'찾아가는 파쇄지원팀'은 연중 운영하며 잔가지, 고창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을 파쇄 지원하고 파쇄 신청은 해당 읍·면 및 부안군청 산림정원과(063-580-4448)를 통해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고창·부안, 코레일 '맞손'

정읍시청서 협약... 관광 공동 마케팅·관광 상품 개발 등 적극 나서기로

전북 서남권 관광산업이 철도를 만나 한층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전북 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이하 서남권협의회)와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이하 전북본부)가 서남권 관광과 철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측은 5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두희 전북본부장과 이학수 정읍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심덕섭 고창군수가 참석해 '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및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상생협력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서남권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철도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산업 진흥,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서남권협의회는 철도 관광상품의 공동 홍보와 연계 상품 개발을 위해 지역 관광자원을 공유하고 관광 상품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전북본부는 서남권 관광과 연계한 철도 상품을 개발·운영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관광객 모객·예약 관리 등을 담당한다.

협약식에서 3개 지자체장과 이두희 본부장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본부와 함께 서남권 관광 활성화와 수도권 관광객 유치에 위한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과 공동 마케팅을 추진



이두희 전북본부장과 이학수 정읍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심덕섭 고창군수가 참석해 '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및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상생협력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할 계획"이라며 "문화관광과 철도여행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학수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4개 기관이 힘을 모아 서남권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동반 성장에 기여하겠다"며 "특히 '지역사랑 철도여행 반값 기차표'를

활용하면 수도권 관광객들이 더욱 쉽게 서남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남권협의회는 올해로 23년째를 맞았다.

2003년 출범 이후 서남권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정읍·고창·부안이 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정읍시가 주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미래 농업 선도... 정읍시, 80억원 규모 시범사업 실시

54개 시범사업 본격 추진

정읍시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80억원을 투입, 54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정읍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를 열고 심의위원 위촉과 사업 추진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학수 시장은 시의원, 농협 관계자, 대학 교수, 농업 관계 공무원, 농업인 단체 대표 등 20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이학수 시장은 "농업을 핵심 산업으

로 삼고 있는 정읍시는 사업 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신기술 보급 △전문 농업인 양성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 △간접산 농업경영인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54개 사업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세부적으로는 △식량·축산 분야 드론 비잔저감 AI(공기촬영) 노즐·분무장치 신기술 시범사업 등 13개 사업

△소독작목 분야 민감채소 수급 안정 생산기술 시범사업 등 14개 사업 △농촌사회 분야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사업 등 27개 사업이 포함됐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시범사업들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반영해 정읍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군산문화관광재단, ‘찾아가는 군산 문화배달’ 신청 접수

참여할 희망 기관·기업은 27일까지 신청 접수

"문화를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공연을 배달해드립니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 '군산 문화배달'과 '일터로 찾아가는 군산 문화배달' 프로그램을 참여할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군산 문화배달'은 시민과 군산시 소재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연방문 및 놀이 배달을 서비스하는 사업이다.

다음으로 '일터로 찾아가는 군산 문

화배달'은 평일에 문화센터나 예술회관을 찾기 어려운 기업 임직원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 서비스이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재단이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청탁기념일, 기업교육, 단체대회, 직장 동호회 모임 등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문 공연장이 아닌 시민들의 직장 모임 등 극히 일상

적인 곳에서 시민들과 직접 눈을 맞추며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고 흥미로운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 문화배달사업 모집 공고 및 신청서는 재단 누리집 www.gunsa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7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csy0510@gunsan.or.kr)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사업팀 (☎063-443-4808)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 공급업체 선정 쾌거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6년 연속 선정... 도내 10개 시·군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확대 공급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2025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 공급업체로 6년 연속 선정됐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와 미래세대 태어날 아이의 건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4년 7개 시·군 공급에서 올해는 10개 시·군(군산,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으로 확대 공급하게 되었다.

앞으로 센터는 전북도 내 10개 시·군 1천여명의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지원하며, 단가는 1인당 48만원(시·도비 보조 80%, 자기 부담 20%)이다.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로, 센터는 선정 후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창한 센터장은 "6년 연속 사업을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내 임산부들이 각 가정에서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품질관리와 배송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시 역시 이번 지원사업이 단순히 친환경 농산물 공급 차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 △건강한 먹거리 문화 확산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이재춘기자

‘공약실천 매니페스토 특강’

고창군,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담당 공무원 130여명 대상

고창군이 5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과 공약사업 담당 공무원 130여명을 대상으로 공약실천 매니페스토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의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을 맡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다시 쓰는 지방자치, 회복력이라는 주제로 공약실천을 위한 공무원과 평가단의 역할 및 군민참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는 공약추진 방향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소개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민선 8기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A(우수)' 등급을 받으며 공약 실천 가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7월에는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해 최우수로 선정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민선8기 공약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군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8기 고창군의 공약은 6대 분야 80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기별로 공약 이행 점검을 실시하여 군수공약 사항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군산시립도서관, 시민독서 20일 첫 아카데미

군산시립도서관은 20일 오후 7시 '2025년 시민독서 아카데미 첫 강연'의 막을 연다. 첫 주자는 황민구 법영상분석전문가로 '진실을 담은 천 개의 목격자'라는 주제로 관객 앞에 나선다.

특히 이번 강연에서는 최근 화제가 되는 다양한 범죄의 위험성, 예방 및 대응 방법, 법 영상분석 관련 흥미로운 사례 등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은 tvN '천 개의 눈', 유튜브 온 더 블럭, SBS '그것이 알고 싶다', KBS '추적60분', MBC '비밀스토리 눈'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얻었다.

이후 저서 천 개의 목격자를 집필해 학교 도서관, 기관 등에서도 다양한 특강을 통해 대중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중이다.

강연 현장 참여자 접수는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시립도서관 누리집(<http://lib.gunsan.go.kr>) 및 전화로 선착순 모집한다. 또한 군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도 진행된다.

작년에도 군산시립도서관은 △박지선 범죄심리학 교수 △오건영 거시경제전문가 △설채원 수의사 △김겨울 작가 △정하원 노년대과 교수를 초청, 총 5회의 시민독서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2025년에도 군산시립도서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채롭고 깊이 있는 내용의 강연을 선보이며, 시민들이 행복과 가치 있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립도서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군산시립도서관 도서관총계(☎063-454-5630)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정읍시,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추진

정읍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주민 체감도가 높은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연주시장(연지동·수성동) 일원에 화재 예방과 재산 보호를 위해 IoT 기반 '스마트 화재감지기'를 설치했다.

스마트 화재감지기는 연기, 불꽃 온도 변화를 감지해 즉각적인 알람을 제공하고 점포주와 119 상황실로 신속하게 전파된다. 또한, 실시간 화재 감지 센서를 통해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이 가능하고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 긴급출동이 이뤄진다.

추가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모텔, 좁은 골목길이 많은 주택가 등 취약지역 30곳에는 경찰서 112 상황실과 연결되는 비상벨이 설치된다.

또한 시민들이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난방기, 온열벤치, 공기정화기, 에어캐터 등이 포함된 '스마트 버스정류장' 2곳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정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정읍사공원 유아숲체험원 본격 운영

정읍시가 유아들의 자연 체험 교육을 위해 '정읍사공원 유아숲체험원'을 본격 운영한다.

유아숲체험원은 만 2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숲지도사가 곤충, 흙, 나무 등 자연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유아들은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맞춤형 산림교육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지난 2019년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한 이후 매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학부모와 참여기관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약 3500명의 유아들이 교육을 수료했다.

올해 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운영되며 △정기반(정읍 소재 유치원·어린이집) △수시반(정읍 외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정기반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정읍



시청 산림복지과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안내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hsl656@korea.kr)로 3월 1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수시반은 시청 홈페이지(통합예약·정읍사공원 유아숲체험원)에서 사전예약 후 단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남석 산림복지과장은 "정읍사공원 유아숲체험원의 체험 중심 산림교육이 유아들의 신체 발달과 창의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